Vietnam

하노이지사

자국산보다 인기 많은 수입산 패션프루트

베트남 패션프루트(Passion fruit) 시장

베트남에서는 패션프루트가 생산되고 있지만 원산지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인 수입산도 판매된다. 현지산 패션프루트에 비해 현재 수입되고 있는 상품들은 맛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제품 외관인 크기와 색깔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수입산은 현지산에 비해 20~100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산 패션프루트는 탁송업체인 '핸드캐리'로 수입되고 있으며, 점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산 vs 에콰도르산 vs 콜롬비아산

패션프루트는 베트남에서 생산성이 높은 작물이다. 제품의 외관은 작고, 표면은 자주색이며 향과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가격은 보통 2만~3만5,000VND/kg(15개, 약 1,000~1800원) 수준이다. 베트남산 패션프루트는 껍질을 제외한 과즙과 과육(씨 포함)을 물에 타서 마신다.

에콰도르산은 베트남산과 달리 노란색이며 크기가 크다. 단맛과 신맛을 골고루 갖고 있으며 가격은 약 70만VND/kg(약 3만5,000원), 9~10만VND/개(4,500~5,000원) 수준으로 제품은 15~20개가 들어있는 박스로 수입되고 있다.

콜롬비아산 역시 노란색이며 크기가 크고 베트남산에 비해 단맛이 더 강하다. 하지만 베트남산과 맛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 가격은 약 100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콜롬비아산은 23만~25만 VND/봉지(2개, 1만1,600~1만2,650원)로 판매되고 있다.

빨대로 먹는 콜롬비아산 인기

판매되고 있는 패션프루트 중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품은 빨대가 동봉되는 콜롬비아산이다. 포장 하나 당 과일 2개와 빨대 1개를 포함하고 있는데, 빨대를 꽂아 과즙을 마시고 빨대 하단을 수저처럼 사용해 남은 과육을 떠먹을 수 있다. 과일에 빨대를 꽂아 먹는 방식의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재미를 함께 줘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 수입 과일상에 따르면 수입산 과일 중 베트남 소비자들이 이번 여름에 가장 선호하고 있는 상품은 패션 프루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패션프루트 VS 에콰도르 패션프루트 VS 콜롬비아 패션프루트

가격 **25,000~30,000** (VND/kg)
1,666~2,000 (VND/개)

가격 **700,000** (VND/kg)
90,000~100,000 (VND/개)

가격 **800,000** (VND/kg)
115,000~125,000 (VND/개)

| 패션프루트 빨대 동봉 상품 |

Tip Box

| 100가지 맛과 향이 나는 패션프루트 |

브라질이 원산지인 열대과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재배되는 패션푸르트. 독특한 향미와 잘 어울리는 이름은 유럽에서 남미로 건너간 선교사들이 이 과일의 꽃을 처음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수난(the Passion)을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해서 'Passion fruit'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중국에서는 맛과 향이 100가지가 넘게 난다고 해서 '백향과'로도 불린다.

모양은 둥글거나 타원형이고 검붉은 보라색으로 익는 것과 노랗게 익는 것이 있다. 반을 가르면 젤리 상태의 과육이 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풍미와 향기가 쉽게 퍼져나가 디저트나 음료수, 향수에 많이 사용되지만 숟가락으로 생과육을 떠 먹는 것이 가장 맛이 좋다. 강렬하고 톡 쏘는 향미는 만다린 오렌지, 파인애플 등의 향을 품고 있다. 특별한 맛이 없는 씨와 풍성한 과즙을 함께 아삭아삭 씹는 대조적인 경험을 즐긴다.

패션프루트는 100g 당 97kcal이며 탄수화물 약 23g, 단백질 2g, 지방 0.7g, 나트륨 28mg 등으로 구성된다. 올레산, 리놀산, 팔미트산, 리놀렌산, 갈릭산 등 다양한 산도 함유하고 있다. 특히 비타민 C의 성인 1일 권장섭취량은 60mg인데 패션프루트는 100g 당 30mg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산화효과가 있다. 패션푸르트를 이용한 기능성 연구도 많이 진행돼 껍질은 사축의 사료로 사용하며, 종자는 23%의 유지를 포함해 기름을 생산하는 데 이용된다.

Key Point

베트남에서 생산돼도 다른 품종이면 수출 노려볼 만해

- 패션프루트는 베트남 내 수입산 과일 중 새로운 시장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 베트남 소비자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갖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품종이 다르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시험 삼아 구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산 과일 중 현재 베트남에서 재배되고 있는 과일에 대해서도 품종이 다를 경우 수출을 고려해볼 만하다. 지난해 베트남 내에서 밀크티가 대유행을 한 것처럼 무알콜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큰 점을 공략해 음료류 또는 음료처럼 마실 수 있는 과일의 진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출처 : vnexpress.net, dantri.com.vn, minhphuongfruit.com, V&K Fruit